

# 폴란드 노동시장 현황

(2013. 4. 11)

폴란드주재원

## □ 폴란드 노동시장 침체

- 경기침체의 여파로 지속되는 높은 실업률과 더 나은 임금조건을 위해 서유럽 주변국으로 이주하는 취업 이주민 비율이 증가함.

### <높은 실업률>

- 폴란드 노동청에 따르면 폴란드의 실업률은 2013년 2월 기준 14.2%로, 지난해 12월보다 0.8% 증가함. 총 실업인구는 230만 명으로 집계되며 이는 예상보다 길어지는 겨울철로 인해 일자리 수 증가가 지연된 것에 기인함. 한편, 2012년 신규 일자리 수는 지난 7년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함.
- 주요 외국인투자 지역인 Poznan(4.5%), Warsaw(4.6%), Sopot(5%), Wroclaw(6.1%), Krakow(6.3%) 순으로 실업률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남. 비공업지역인 북동부 Warminsko-Mazurskie 주에서는 평균 실업률이 22.2%로 가장 높게 나타남.
- 연령대별로는 25세 이상 34세 이하 청년층의 실업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세 이하가 그 뒤를 이어 청년 실업문제가 특히 두드러짐.

<표1>

연령별 실업 인구

	Total	24세 이하	25~34	35~44	45~54	55세 이상
2011 7~9월	1,861	401	548	346	358	207
2011 10~12월	1,982	416	581	373	385	226
2012 1~3월	2,141	437	637	408	411	247
2012 4~6월	1,964	380	583	378	378	243
2012 7~9월	1,979	402	584	381	367	242
2012 10~12월	2,136	424	627	418	400	266

자료원: GUS(폴란드 통계청)

### <주변국으로의 노동력 유출>

- 국경을 접하고 있는 독일에 약 41만9000명의 폴란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새로 개방된 동유럽 8개국의 노동인력 중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함.
- 독일 실질임금(7만6,530달러)은 폴란드(1만5,900달러)의 약 4.8배에 달해 임금매력도가 상당히 높고, 폴란드-독일 국경 거주민은 통근이 가능할 정도로 지리적 인접성이 좋음.

### □ 폴란드 노동시장의 장점

가. 우수한 유휴 청년노동인력 풍부

- 우수한 고등교육 인재가 많고 EU 회원국 중에서 임금수준이 저렴하여 외국기업에게 매력적인 시장임.
- 폴란드는 EU 국가들 중에서 가장 많은 노동인구층을 가진 나라로써 노동인구가 전체 인구 3800만 명의 64% 이상을 차지함.
- 특히, 2011년 6월 기준으로 전체 인구 중 약 25%가 20세에서 34세 사이의 청년층으로 형성됨.
- 고등교육 이수율이 EU국가 중 4위국임.
- 노동인구(25~64세)의 약 89%가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지고 있음.
- 취업인구의 약 32%는 대졸 이상, 29%는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자임.
- 매년 약 40만 명의 고등교육을 받은 신규 인력이 배출됨.
- 폴란드에는 18개의 종합대학과 22개의 기술대학, 326개의 기타 사립대학 등 총 455개의 고등교육기관이 있으며, 이들 교육기관에서 매년 약 40만 명의 졸업생을 배출함.

- 이 중 경제 및 경영 전공자가 총 졸업생 중 25%의 비중을 차지하여 가장 많고, 이공계열은 16%, 의학은 7%를 차지함.
- 전체 폴란드 학생 중 97%가 영어를 구사하며, 독일어와 러시아어 구사자가 각각 59%, 37%로 그 뒤를 이음.
- 증가하는 고급인력 공급에 비해 수요가 부족해 많은 잉여인력이 발생함.
- 꾸준한 경제성장에도 폴란드의 총 실업률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음.
- 특히, 18세에서 34세의 청년들이 실업인구의 49.2%를 차지함. (폴란드 통계청, 2013. 02.)

#### 나. 낮은 임금

- 2013년 폴란드 노동자들의 월 평균임금은 3680즈위티(890유로)로 한화 130만 원 수준임.
- 2013년 최저임금은 작년보다 약 4.5% 인상된 월 1568즈위티(380유로)를 기록함. 폴란드의 최저임금은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, 서유럽의 기존 유럽연합 가입국과는 아직 확연한 임금차가 존재함.
- 그동안 폴란드는 유럽시장으로의 접근성과 높은 교육수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인건비 덕분에 유럽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생산기지로 인식됨.
- 실제로 LG전자, 삼성전자 등 한국의 대기업들은 잇달아 폴란드에 공장을 세웠고, 유럽 내에서도 다른 EU 국가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저렴한 폴란드로 공장을 이전하는 사례가 늘고 있음.
- 최근에는 노동중심산업과 단순조립형 사업 투자진출이 점차 줄어들고 폴란드의 고급인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, R&D 분야 투자가 늘어나는 추세임.

## □ 폴란드 정부의 대책

- 노동부 장관 Władysław Kosiniak-Kamysz은 실업률 증가에 대한 대책으로 올해 실업자 직업교육과 신규 일자리 창출 기업에 대한 보조금으로 47억 즈위티를 책정하겠다고 밝힘.
- 폴란드 노동부의 현대화와 사기업과의 협력을 추구하기 위한 개혁안 발표함.
  - 지난 1월 노동부는 독일과 영국에서 성공적으로 시행 중인 Public-Private job center을 벤치마킹해 Mazowieckie, Lower Silesia, Podkarpackie 3개 지역에서 시범 프로그램을 시작함.
  - 개요는 사기업들이 노동부와 협력해서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고, 실업자들을 교육하여 노동시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으로, 장기 실업자와 출산휴가 후 직장으로 복귀를 원하는 여성들이 주 대상임.
  - 또한, 폴란드는 2020년까지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최상의 투자조건을 제공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Special Economic Zone을 운영할 예정임. 경제부장관과 재무부장관은 이 구역을 2026년까지 연장하는 데 합의함.

## □ 전망 및 시사점

- 올해 실업자 직업교육과 고용 활성화를 위해 상당한 EU기금이 제공될 예정임.
  - Human Capital로 명명된 이 프로그램은 지역마다 단계별로 시행될 것이며, 교육 프로젝트와 다양한 계층의 폴란드인, 특히 장애인들의 고용 활성화를 위해 50억 즈위티가 투입될 예정임.
  - Finance Training Programs, 컴퓨터 코스, 창업 지원 등 최대한 참가자의 니즈에 맞춘 프로그램이 될 전망이다.
- 폴란드 경제의 꾸준한 성장에도 젊은 층을 위한 일자리는 부족한 상황임.

- 외국 기업들에는 청년층 고급인력 수급에 있어서 유리할 것으로 기대함.
- 고학력의 젊은 인력이 풍부하고 타 유럽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임금이 낮아 유럽 진출을 고려하는 우리 기업에 매력적인 노동시장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함. 다만, 진출고려 시 유럽의 복잡한 고용노동법에 대해서는 충분한 사전검토가 이뤄져야 할 것임.

자료원: GUS(폴란드 통계청), Eurostat, CBOS 보고서, 코트라 바르샤바무역관